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1.06.(수) 배포 2024. 11. 06.(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학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

- 기후변화 대응 협업 전시개최로 지방소멸 극복 기여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교육부가 주최하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력양성과 기술협력 부문에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해 산학협력을 위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계원예술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교수창업기업인 엠제로랩, 춘양농협 등과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별 전시 ‘사명’을 개최해 기술협력 부문에서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5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사명’ 전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종자 보전의 가치와 지구의 열대화에 따른 봉화지역 춘양목과 사과재배의 위기를 담아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수와 매출이 각 83%, 124.3%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증대에도 기여한 바 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학생들은 융합형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춘양농협은 봉화사과 홍보를 통한 판로확대를 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에서 민·학 협력을 통해 수목원과 협업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허재균 (054-679-0853)
	수목원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실	담당자	팀 장	최수진 (054-679-0860)



1. 11월 6일 부산 벡스코 산학협력 EXPO에서 진행되는 ‘2024년 산학협력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허재균 고객서비스실장,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 최수진 문화협력팀장)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5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사명' 전시 모습